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co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뜻쟁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h@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사무 상 3,3ㄴ-19.19

[화답송] 시편 40(39),2ㄴ과 4ㄴ,7-8ㄴ,8ㄴ-9.10(◎8ㄴ과9ㄴ참조)



(후렴)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

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기를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1 코린 6,13ㄴ-15ㄴ,17-20

[복음환호송] 요한 1,41.17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음] 요한 1,35-42

[성가안내]

- 입당성가 [18] 주님을 부르던 날
- 봉헌성가 [342] 제물 드리니
- 성체성가 [160] 하느님의 어린양
- 파견성가 [31] 이 크신 모든 은혜

미 사 봉 헌

● 연미사

김화자 소화 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우 요셉 강경대 마리아 부부
 서정용 안드레아
 정현술
 김진형 치프리아노
 양윤희 루시아

봉헌

김영숙 카타리나
 김지영 유스티나
 서경자 울리아
 윤 루시아
 이경자 울리안나
 이영애 레지나

● 생미사

엄기섭 안토니오 김한숙 카타리나 부부
 박 아그네스
 박 아그네스
 이규완 아토니오 가정
 김영덕 유스티나
 이영애 레지나
 정다경 마리아
 이영애 레지나, 이지훈 아네스
 유 데이빗, 유 데니엘, 유 케이디

봉헌

익명
 박 알버트
 양미숙 마리아
 익명
 이경자 울리안나
 이지훈 아네스
 이지훈 아네스
 이지연 안나레지나
 유희순 그레이스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1월 17일	백이백 아오스딩	박기웅 사도요한	민재인 데레사	민재인 데레사	
1월 24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이경자 울리안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이경자 울리안나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토요일 4:00 am
일요일 8:00 am, 9:15 am (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 미사 :
월 ~ 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미사참석시 지킬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 (평화의 인사등)
- 봉헌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 영성체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였
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성경 통독을 합시다~

본당에서는 ‘성경통독표’를 통해 성경을
일 년 일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매일 와 닿은 말씀을 노트에 적으면서
성경말씀을 새기는 감동,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한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성 베네딕도의 규칙서 머리말 8~21 -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이미 왔습니다” 하신 성서의 말씀에 분발하여 일어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빛을 향해 눈을 뜨고, 하느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외치시며 훈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니, **“그분의 목소리를 오는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하시고, 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듣거라. 주님을 두려워함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노라; 너희는 생명의 빛이 있는 동안에 달려, 죽음의 암흑이 너희를 덮치지 않도록 하여라.”**

주께서 이 말씀을 백성의 무리에게 외치시고 그들 가운데서 당신 일꾼을 찾으시며, **“생명을 원하고 좋은 날들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말씀하신다. 만일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저로소이다”하고 대답한다면, 하느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원하거든, 네 혀는 악을 삼가고 네 입술은 간교한 말을 하지 말라. 사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 가라. 그리고 너희가 이대로 행한다면 내 눈은 너희를 바라보고 내 귀는 너희의 간구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나를 찾아 부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나 여기 있노라’고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반가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보라, 주께서 당신 자애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선행의 실천으로 허리를 묶고 복음성서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를 당신 나라로 부르시는 그분을 뵈옵도록 하자.

- 베네딕도는(540 선종) 라틴어 Benedictus 로 ‘축복된 사람’, 중국어로는 ‘분도’ 즉 ‘향기나는 길’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Benedict 이다.

- 성 베네딕도는 수도생활 말년에 수도 규칙을 자신의 수도자들을 위해 전해오던 옛 규칙서들을 (예: 스승의 규칙서, 파코미오 규칙서, 바실리오 규칙서등) 참고하면서도 자신의 오랜 수도 생활의 체험과 깊은 성경 묵상의 결과로 집필하였다.

따라서 규칙서 곳곳에는 신.구약의 성경 말씀들이 가득 담겨있다.

- 성인 사후 150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많은 수도회에서 ‘수도 규칙서의 기본’으로 여겨지며 수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복음적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 축하합니다.

2020년 ‘일년 일독 성경통독’ 완독하심을 축하합니다.

김영옥 세실리아

기도해주세요

♡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전마사자(카타리나) 김동희(헬레나)

이중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테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봉운(바오로) 정영도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오전 08:35 지하 성당 고해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 말 말**]

Please, Thank you, I'm sorry.

사실 모든 가정에 문제는 다 있습니다.
때론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우린 나약한 인간입니다.
식구끼리라도 다툼 때가 있지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과 다투거든 그 날이 가기 전에 화해하세요.
왜냐고요? 날마다 냉전을 벌이면 아주 위험합니다.
가족에게는 늘 소중히 여겨야 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Please' (~부탁해요. ~해도 괜찮을까요?).
'Thank you' (고마워요).
'I'm sorry' (미안해요).

'Please' 라고 말해야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들지 않는 겁니다.
이 세 단어를 잊지 마세요.
가정에서 이 세 단어를 주고받는다면 그건 건강한 가족입니다.

- 2020. 12. 27. '성가정'을 주제로 한 삼중기도 훈화 중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올드레아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